

부안 '국악 신동' 김태연양 '관심 집중'

판소리·민요 4세 때부터 배워 2년 채 안되 성악부분 특별상 수상

우리 가락이 좋아 판소리와 민요를 4세 때부터 배워온 김태연(6세,여)양이 국악인들로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다.

판소리, 민요를 부르기로 생활화 한 태연양이 본격적으로 소리를 시작하게 된 것은 광주 판소리 체험마당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부터 가야금병창 1인자인 박선옥 선생을 만나 본격적인 지도를 받기 시작했다.

태연 양은 소리를 시작한지 2년이 채 안되지만 광주 판소리 체험마당 판소리 부분 대상과 특별상, 정음 청소년 국악 경연대회에서 성악부분 특별상을 수상하면서부터 전문 국악인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태연 양은 판소리 심청가 중 따라간다는 대목을 즐겨부르면서 부안에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해 벌써부터 부안 국악계의 관심이 뜨겁다.

부안군과 부안 국악협회에서 주관하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물의 거리 공연장에서 1회씩 부안군민들을 대상으로 판소리 공연을 펼치면서 "판소리 명창"으로 태연 양은 유명세를 타고 있다.

어머니 김애란씨는 "태연 이가 판소리를 배운 지 얼마 안돼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다"며 태연 이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르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가락이 좋아 판소리와 민요를 4세 때부터 배워온 김태연(6세,여)양이 국악인들로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다.

가야금병창 박선옥 선생은 "소리란 열정만으로 다"며 태연 이가 부안의 국악 신동들처럼 전국의 안성된 게 아닌, 노력과 성찰이 있어야만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양군 전북대 교수, 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북대학교 신양군 교수(법학전문대학원)가 교육부 산하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됐다. 법학교육위원회는 교육부 소속 심의기구로서 위원장 포함 13인으로 구성되고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및 정원에 관한 사항과 교육부장관이 부여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이에 따라 신 교수는 2019년 4월까지 2년 동안 임기를 수행하며 국내 법학전문대학원의 이행 점검 및 평가 기준 논의와 운영규정 개정 심의 등을 통해 지속적인 질 관리와 안정적 정착을 이끈다.

한편 신양군 교수는 1984년부터 전북대 교수로 재직해오며 법학연구소장과 법학전문대학원장, 대학 부총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호남지역 대학 최초로 형사법학회장을 지낸 것을 비롯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정해은 기자

덕진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와 북한이탈주민 지원 전개

전주덕진경찰서(서장 박성구)가 보안협력위원회와 함께 27일 신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기 위한 가정 방문을 가졌다.



이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위해 43인치 TV와 가구 등을 전달하며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박성구 덕진서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취업, 법률, 의료, 장학금 등 다양한 실질적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민근 기자

무주경찰서, 범죄취약지 경고문·출입금지 라인 설치 행사

무주경찰서(서장 나영민)는 27일 무주읍내권 공·폐가에서 경찰서장, 무주군수, 마을이장,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무주 만들기 위한 범죄취약지 경고문과 출입금지 라인 설치 행사를 실시했다.

무주서는 범죄취약지 우려지역 지역인 공·폐가에 대하여 자치단체와 협조, 체계적인 정비 및 점검관리를 깨끗하고 안전한 무주 만들기 구현을 위한 공동체 치안활동에 돌입하였으며, 앞으로 무주군 관내 공·폐가를 대상으로 출입금지 경고문과 테이프를 제작 설치하여 범죄예방 활동과 범죄유발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나영민 서장과 황정수 군수는 한 목소리로 "청정한 무주가 안전한 곳으로 더욱 거듭나기 위해서 범죄취약지역 공·폐가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다"면서 치안활동에 서로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조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서울 호산나 선교회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방문

27일 수도권 호남(전북, 전남, 광주)출신 목사 30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서울 호산나 선교회 소속 60여명이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방문했다.

이후 선교회 회원들은 2명의 정읍시 문화관광 해설사 2명의 안내를 받으면서 내장산과 전봉준공원을 시작으로 황토현전적지,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단석보, 탐방장터, 장봉준장군 고택, 사발통문 자성의집, 동학농민혁명 묘지 등 유적지를 차례로 둘러봤다.

정읍 고부출신인 한창영 사무총장은 예전보다 달라진 정읍시가지와 내장산문화관광, 첨단산업단지 등을 둘러보며 고향의 발전상에 기쁨과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다.

이날 유적지 방문에 앞서 선교회 공동체 회장을 비롯한 임원 12명은 정읍시청을 찾아 김생기 시장과 면담하면서 선교회 설립취지와 연혁, 활동사항 등을 설명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영덕 전 익산농협조합장, 편백나무 1만본 기탁

익산시(시장 정현율)가 도심의 소음과 공해, 도시열섬현상, 부족한 휴식공간의 해결책으로 푸른 익산 만들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헌수가 이어지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27일 오전 시청 시장실을 찾은 이영덕 전 익산농협조합장은 푸른 익산 만들기 사업에 사용해 달라며 1천만원 상당의 편백나무 1만본을 익산시에 기탁했다.

치과 의사 최경명 원장, 원광대 치의학사 관련 중요 물품 기증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치과대학 제2치의학관 1층 로비에 오래된 치과 재료와 기구, 서적 등 치의학사와 관련된 중요 물품들이 전시됐다.



전시물은 50년 넘게 치과 의사 생활을 한 최경명 원장이 그동안 힘들게 구한 책과 기자재들을 원광대 치과대학에 기증한 것으로써 오스탬의 도움으로 상설 전시가 이루어졌다.

최경명 원장은 1969년 서울대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대한치과보철학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우리나라에서 교합기에 대한 개념이 생소한 1983년부터 교합 관련 세미나를 시행해 지금까지 400여 명의 제자가 치과계 전반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원광대 치과대학 11기 최성우 동문의 부친인 최경명 원장은 치과대학 김상철 교수와의 인연으로 원광대에 물품을 기증하게 됐으며, "후학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면 매우 기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기증된 물품 중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에서도 구하기 어려운 1951년에 창간된 미국 보철학회지 'Journal of Prosthetic Dentistry' 창간호부터 지난해까지 발행된 수십 권이 빠짐없이 포함돼 있으며, Gnathology의 대가인 Peter K. Thomas 가 직접 사인한 교합기를 비롯해 시대별로 다양한 교합기와 교합분석기 등 치의학사에 중요하고 가치 있는 물품들로 구성돼 있다. 한편, 원광대 치과대학은 최경명 원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최근 치과대학 회의실에서 교수와 학생대표들이 함께한 가운데 기증식을 가졌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17년 11월 28일 동복(일) (주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발행·편집인 조병성 부회장 김승곤 전무 겸 편집국장 김관준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45-4113	종양지사 010-9888-6874	남원지사 632-3386	고창지사 533-6888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86	김제지사 547-8886	임실지사 010-9642-2725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6886	진안지사 433-3084
호지지사 010-8845-9835	팔백지사 253-6884	남원지사 632-0886	정읍지사 536-3787
	군산지사 010-6789-003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82-8157
	익산지사 658-98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민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두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등교시각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아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난한 학교를 위한 행복한 교육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정의 '보금자리' 역할을 재점검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